

자유종교교육 모형 탐색 - 기독교종립대안학교를 중심으로 -

송 순 재

감리교신학대학교

〈요 약〉

이 글은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종립학교들이 종교교육이라는 과제 앞에서 정치적, 교육학적으로 봉착한 난관들을 인식하고, 그 해법을 위한 단서로 세 가지 종립학교 시도들을 모형으로 제시하되, 이들 각각의 모형들이 발전시킨 특징들을 통해서 현 상황에 유의미할 수 있는 쟁점을 골라 이를 중심으로 교육현장에 유실한 결론을 도출하려 하였다. 그러한 모형들은 독일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유종교교육”을 시도하는 종립대안학교들 중에서 선택했는데, 그 까닭은 이 문화권에서는 미국에서와는 달리 종교를 공교육의 주요한 과제로 인식해 왔기 때문이며, 또한 종립대안학교들은 그중에서도 더욱 유의미한 사례들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그 사례들 중 첫째는 개신교 학교로서 헤르만 리이츠(Hermann Lietz)가 발전시킨 전원학사(Landerziehungsheim)이며, 둘째는 가톨릭 학교로서 칼 요제프 라이프레히트 학교(Carl-Joseph-Leiprecht-Schule)이고, 마지막 셋째는 인지학적 종립학교인 발도르프 학교(Waldorfschule)이다. 결론 부분에서는 이들 사례를 통해서 우리네 학교 상황을 위해 유의미하게 거론해 볼 만한 쟁점들을 간추려 보았다. 아울러 이 주제에 관한 한 우리나라 학교들의 종교교육 상황 전반에 걸쳐 이례적이라고 할 만한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의 종교교육 사례를 들어 그 특징적인 점들을 제시했다. 이상 논의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자유종교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한 가지 모형으로 필자가 철학과 교육과정의 기초를 놓은 감리교종립대안학교인 “산돌학교”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 글은 비록 기독교종립학교를 위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여기서 끌어낸 단서들은 국공립학교를 위해서도 의미하는바 적지 않을 것이다.

핵심 주제어 : 기독교종립학교, 자유종교교육, 종립대안학교, 정치적 자유와 교육학적 자유

I. 도 입

최근 우리 사회에서 종립학교 종교교육¹⁾의 정당성과 현실 적합성 문제를 둘러싸고 논의가 분분하다. 이는 평준화 제도 하 종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이 자리 잡을 곳이 마땅치 않은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를테면 그 비판적 목소리는 종교계 사립학교 운영자 측과 학생들 양편 모두로부터, 한편에서는 사립학교의 존립 이유를 근거로 즉 국가가 사립학교 종교교육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다른 한편에서는 평준화제도 하에서 학교에 다니는 한 특정한 종교를 강요받을 수 없다는 학생들 편으로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일견 그 대치 상황의 마땅한 출구는 없어 보인다. 그래도 접근하기에 따라, 혹은 제도 개선의 노력을 통해서, 혹은 청소년들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교육학적 방안을 통해서 현 상황에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양의 경우 사립학교는 그 설립 목적에 따라 종교교육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종교계 사립학교들에서 종교교육은 평준화 제도 도입 후 차츰 약화되어 왔으며 현재로서는 겨우 연명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예컨대 종교과목은 다만 복수선택과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정례적 예배나 기도회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외적 간섭과 감호의 대상이 되어 있다.²⁾ 이 점에서 평준화 제도 도입 당시의 정부의 조치는 학교교육에서 종교교육의 중립을 선언한 미국 정부의 정책적 선례와 일정 부분 같은 맥락에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로부터 오는 이런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해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평준화 제도를 국공립학교에 한정짓고, 종립학교를 포함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상의 자유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 이 편제에 변화를 주기는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만일 이러한 전체 제도상 변화가 어렵다면 종립학교에 한하여 종교교육의 자유를 허용하는 길이 남게 된다.

다른 하나는 국·공·사립학교 전체에 종교교육을 도입해 보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근대적 학교교육이 종교교육의 중립적 입장을 표방하면서 종교적 차원을 배제하였는바, 이러한 상실이 오늘날 인간성 위기의 한 요인이 되었으리라는 견해에 따른 것이다.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 사회가 경험하는 다원적 종교문화 상황을 고려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어느 한 가지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것 보다는, 종교문화와 종교적 세계로 널리 이끌어 들이는 것을 보다 온당한 목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혹 필수 교과목적 차원에서 종

1) 이 글에서 “종교”는 보통 “기독교”를 지칭한다. 다만 서구 문화권에서도 새로이 도래한 다원 종교문화 상황을 고려하여 종교는 일반 종교를 지칭하는 말로 기독교는 기독교로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용어상의 차이는 문맥에서 구별해 낼 수 있다. 지면상 주제는 기독교 종립학교에 국한하였으므로, 종립학교 전반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2) 이런 제약 하에서 기독교종립학교들 중에는 다양한 시도들, 예컨대 특별활동, 소그룹성경공부, 신우회, 봉사활동, 축제, 동아리 활동 등 종교교육이 나름대로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다.

교를 도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이들도 있겠고, 종교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굳이 종교라는 말을 쓰지 말고 “철학”이나 “삶의 형성”같은 표현을 쓰거나 혹은 비유적 표현을 써서 - 종교는 비유적 언어를 통해 좀 더 의미 있게 경험될 수 있는 것이기에 - 예컨대 현대 러시아의 톨스토이 학교처럼 “삶의 그릇” 정도로 해 놓고 그 안에서 삶의 전체적인 차원을 포괄하는 내용 혹은 종교적 내용을 다룰 수도 있겠다. 물론 그 접근 방식은 학습자들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국가가 의도하는 학교교육에서의 종교적 중립은 종교교육의 부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긍정을 통해서 확보되는 셈이다³⁾.

다른 한편 종교계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형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기로 하자. 앞서 종교계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원칙적 수준에서 변호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현재 이들 종교계 사립학교들에서 이루어지는 종교교육의 내용을 들여다 볼 때 필자는 왕왕 상당부분 학생들을 변호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종종 고압적이며, 독백적이거나 교리주의적·규범적이어서 대화 능력을 상실한 형태로 이루어지곤 하기 때문이다. 이들 중에는 성장하는 세대의 의식구조 및 정신적 상황을 포함하여, 새로이 도래한 다원적 종교문화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학교에서 거론되는 종교교육의 자유문제는, 한편으로는 정치적 문제요,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학적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현재 이러한 과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 종립학교들 중에서 특히 기독교종립학교의 종교교육 문제를, 세 가지 학교 사례를 통해 비추어봄으로써 그 유의미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사례들은 독일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유종교교육”을 시도하는 종립대안학교들 중에서 선택했다. 그 까닭은 이 문화권에서는 미국에서와는 달리 종교를 공교육의 주요한 과제로 인식해 왔기 때문이며, 또한 종립대안학교들은 그중에서도 더욱 유의미한 사례들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이들 종립대안학교는 표준화된 국가교육과정과는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자유와 삶에 개방적인 교육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일반 “대안학교”의 범주에도 해당하지만, 종교교육에 핵심적 가치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대안학교와 구별된다. 이들 종립대안학교는 “자유종교교육”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자유종교교육이라는 개념에서 “자유”란 다음 두 가지를 뜻한다.

첫째는 이들 종립대안학교들이 국가가 규정하는 교육과정의 틀로부터 벗어나, 따라서 이들 국공립학교에서 제공하는 종교교육의 수준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종교를 가르치려 하기 때문이요,

둘째는 종립학교이기는 하나 전통적 종립학교에서 종종 이루어지는 규범적 종교교육 방

3) 종교교육은 학교가 아니라 가정이나 다양한 종교적 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가정적·사회적 여건에 따라 다르게 살아가는 청소년들 모두가 그런 식의 종교교육의 기회를 향유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런 뜻에서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그렇게 있을 법한 결손을 막을 수 있다.

식과는 달리 어린이와 청소년들 삶에 내재된 종교성에 눈을 열고, 그들 삶이 요구하는 종교적 물음과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이며 대화적인 방식을 추구하려 하기 때문이다.

사례들 중 첫째는 개신교계 학교로서 “전원학사”(Landerziehungsheim)이며, 둘째는 가톨릭계 학교로서 “칼 요제프 라이프레히트 학교”(Carl-Joseph-Leiprecht-Schule)이고, 마지막 셋째는 인지학적 종립학교인 “발도르프 학교”(Waldorfschule)이다. 마지막 사례는 특수하여 다른 범주에 넣었으며 이런 식으로 앞서 두가지 사례와 비교해 보도록 했다. 이들 사례들은 현재 우리가 봉착한 문제를 특정한 시각에서 조명해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일종의 “모형”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결론 부분에서는 이들 사례를 통해서 우리네 학교 상황을 위해 유의미하게 거론해 볼 만한 쟁점들을 간추려 보았다. 아울러 이 주제에 관한 한 우리나라 학교들의 종교교육 상황 전반에 걸쳐 이례적이라고 할 만한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의 종교교육 사례를 들어 그 특징적인 점들을 제시했다. 이는 앞서 소개한 서구적 모형들과 비견될 만한 혹은 이를 넘어서는 수준의 자유종교교육의 내용을 갖추고 있어 상호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으리라 기대되며, 우리나라 종립학교들이 봉착해 있는 종교교육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역사적 사례로서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유종교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한 가지 모형으로 감리교종립대안학교인 “산돌학교”(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357) 사례를 소개한다. 이는 자유종교교육을 위한 필자 나름대로의 모색으로 이 학교가 설립될 당시 필자가 설립위원 중 한 사람으로 철학과 교육과정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이다.

종립학교로서의 종교교육 가능성에 관한 연구들은 더러 있으나⁴⁾ 이를 종립대안학교적 시각에서 다룬 연구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연구는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년 추계 학술대회가 다룬 주제 <종교자유와 종교교육> 하에서 필자가 발제한 발표문을 수정한 것으로, 앞서 발표된 연구들의 이론적 논의⁵⁾는 되풀이하지 않고 다만 이를 배경으로 실제 모형 사례를 다루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 글 본문에서 다룬 사례들과 결론적 논지는 종교계 사립학교뿐 아니라, 국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적 가능성을 위한 논의의 단서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이 주제에 관해 지난 1990년대 후반 이후 나온 주요 연구물들을 들어보면 예컨대 다음과 같다. 김귀성, <한국의 중등학교에 있어서 종교교육의 현황과 과제>, 《종교교육학연구》, 제 3권, 1997, 129-168쪽; 김철주·고병철, <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종교교육의 쟁점과 새로운 방향>, 《종교교육학연구》, 제 17권, 2003, 107-132쪽; 김형중, <한국의 초·중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 3권, 1997, 111-127쪽; 아울러 7차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한국종교교육학회 학술지(《종교교육학연구》 제 13권에서 여러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적 관점을 다루었다. 원불교(양은용), 천도교(송준석), 기독교(손원영), 가톨릭(성기선) 등, 이상 참고문헌 참조.

5) 앞서 다루어진 논제들은 다음과 같다: 김용표, <종교자유와 종교교육>; 한성자, <공공교육에서 종교 자유의 성립배경과 역사적·법적 근거>; 이찬수, <종교-자유-교육: 종교적이지도 교육적이지도 않은 한 사례 보고를 중심으로>; 고진호, <종교교육의 실천적 대안을 위한 방향 탐색>.

II. 사례 연구

1. 전원학사(Landerziehungsheim)의 자유종교교육 사례

1) 전원학사에 대하여⁶⁾

전원학사란 농촌과 전원에서 살며 공부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역사적으로는 헤르만 리이츠(H. Lietz, 1868-1919)가 영국의 기숙학교를 모형으로 독일에서 시작한 전원적 기숙공동체 학교가 그 최초의 형태이다. 리이츠와 함께 초창기 개척자들(G. Wyneken, P. Geheeb, K. Hahn)이 있으며 그들 시도의 성격은 진보적인 데서부터 보수적인데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오늘날에는 18개 회원 학교가 “전원학사 협회”를 구성할 정도로 큰 규모로 확산되어 있다. 오늘날 전원학사는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받는 대안학교에 해당한다. 이 학교는 혹시 그 전원적 성격 때문에 은둔주의적인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본뜻은 청소년들이 현세에 나가서 실제로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게끔 일단은 아주 잘 보호된 모판에서 키우자는데 있다. 그래서 전원학사에서는 농촌에 한 발을 던게 하고, 다른 한편 사회·정치적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게 하는 등 현세가 요구하는 다양한 과제들을 습득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이들 학교들 중에는 일정한 의미에서 서구 사회에서 오랫동안 발전된 수도원 공동체를 모형으로 삼고 있다. 종파로 보자면 대체로 개신교에 해당한다. 학교의 성격에 따라 종교교육은 다르게 이루어진다. 여기서 문제 전체를 상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헤르만 리이츠의 대표적인 글 “삶의 양식으로서의 종교”(Religion als Lebensstil)에 나타난 핵심만을 간추려 살핀다.⁷⁾

2) 학생과 그의 일상적 삶의 흐름에 충실한 종교교육구조

리이츠는 당시 학교에서 이루어지던 종교교육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면서 이것과 구별되는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아이들은 다만 교리문답만을 조금 외울 뿐이고, 구약성서가 보여주는 다양한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종교수업은 너무 엄격하며 때로는 벌이나 성적 과도 연결되어 있고, 교과서를 배우는 사안 정도로 그치고 있다. 종교수업은 종종 학생들에게 두려움을 자아내거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을 종종 무신론자로 취급하곤 한다. 이를테면 초·중등학교 시절에 요한복음이나 로마서를 가르쳐 아이들로 하여금 이 책을 싫어하게끔 만든다. 이리하여 학교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종교를 종종 천박스럽게 여기거나 혐오하게 된다.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을 가르칠 때 이들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영웅

6) “전원학사”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것은 《처음처럼》 제 10호, 1998에서 특집으로 다룬 다섯 편의 글 참조.

7) H. Lietz, Religion als Lebensstil, in: Die Religion der Reformpädagogogen, hrsg.v. R. Koerrenz · N. Collmar, Weinheim 1994, S. 207-212.

시하여 그들의 인간적인 약점이나 실수, 혹은 허물을 있는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는다. 간통한 자, 왕위찬탈자, 반역자, 살인자의 모습은 감추어진다. 요컨대 종교는 입으로 시인하는 정도로 그칠 뿐 마음과 삶의 사건이 되게 하지는 못한다.

리이츠는 무엇보다 종교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마음과 삶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서 다음과 같이 파격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① 종교교육은 소위 기존의 교리문답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따라서 교리적 내용은 수업의 첫머리에 오지 않으며 종교 문서와 교재에 대한 암기는 강조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아이들로 하여금 삶의 다양한 형식과 진행과정에 자연스레 참여하도록 이끈다. "우리는 종교를 미리 가르치려고 애쓰지 않고, 삶의 본보기로 경험되도록 하며, 종교와 함께 살도록 이끈다." 종교적 내용이 일상생활 전체와 연계되고 또 그 안에서 경험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때때로 의미가 깊이 체험되는 삶의 길목에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새벽시간이나 자연체험 등을 특히 중시하되, 성서의 내용과 인물과 사건은 이를 배경으로 가르친다.

기도와 예배와 역사수업에서, 고요하고 비밀스런 이른 아침이나 저녁시간에 또 가끔은 강을 따라서 거닐든지, 숲을 거닐든지,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를 거닐면서 바로 그때 우리는 인간의 종교적 독창성과 모든 시대와 민족들의 위대한 예언자들, 특히 가장 위대한 예언자인 예수에 대하여 우리의 어린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거나 읽어준다.

이렇게 하여 교리적 내용의 자리를 다른 덕목들이 대신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예컨대 용서하기, 도와주기, 개선하기, 치유하기, 위로하기, 용기를 불러일으키기, 사랑하기 같은 것들로, 이를 통해 아이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종교적 깊이로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② 종교수업에서 중요한 것은 교리적 논쟁점이 아니라, 심리학적 인식이다. 그때그때 삶의 단계나 문화의 단계에 적합한 종교적 삶의 모범들을 선택하여 제시하되, 아울러 연령층을 고려하여, 즉 그들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에 잘 들어맞게 한다. 이를테면 아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영웅적 인물 "작센공작"(경건주의자 Zinzendorf를 지칭하는 것 같음 - 필자 주)의 방식을 빌어 예수가 어떤 분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③ 일반 학교 종교수업에서는 교리적 강조점 때문에 흔히 예수의 속죄적 죽음이 강조되곤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의 활동과 투쟁에서 배울 수 있는 심오한 내용을 놓쳐 버리고 만다. 따라서 종교를 삶에 연관 지어 가르치려 한다. - 이 방식을 리이츠는 예수의 삶과 가르침의 행적에서 읽어내려 했으며, 또한 예언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했다.

④ 기존의 교리문답서는 부정적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이를 긍정적 내용으로 바꾸어 내야 한다. 아울러 종교와 도덕은 함께 다루어야 한다. 이런 것으로 온유, 관대, 자비, 이웃사

람과의 관계는 물론 나아가서 청년의 이상과 현대적 삶을 위해 필요한 자질 등을 들 수 있다. 우정, 용기, 애국심, 의협심, 직업에 대한 성실성, 인간에 대한 신뢰 같은 덕목들이 그것이다.⁸⁾

⑤ 보통 종교교육이 터부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기독교 전승과 다른 세속적 문헌 간에 의미상 상통하거나 병행되는 것들을 찾아 그 연관되는 바를 적극적으로 제시한다.

⑥ 종교적 소재를 다양한 예술행위와 작품들과 관련지어 제시한다. 이렇게 할 때 학생들은 깊은 감동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가치는 거의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⑦ 종교수업 교재를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사용한다.

⑧ 종교를 다른 교과 영역과 분리하지 말고, 이 양자를 서로 연관 짓는다. 종교적 내용을 역사학, 언어학, 자연과학을 비롯하여 모든 교과목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짓거나 그것들 안에서 찾아내어 제시한다. 양자 간에 내용이 엇갈릴 경우에는 종교적 입장에 우선 순위를 둔다. 학생들에게 있을지 모를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이다.⁹⁾

⑨ 예배와 찬송, 강의는 어린이의 본성에 맞도록 한다. 전원학사에서 드리는 예배는 다른 곳에서와는 달리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종종 갈등을 불러일으키곤 하였다. 보통 예배가 지나치게 합리적이고, 차디차고, 교리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면, 이곳의 예배는 어린이의 성정에 호소하는 방식을 따른 것이었다. 학교 예배 의식은 고대 교부들로부터 빌려오는 대신, 민족의 종교적 삶과 관련짓고, 당시 풍속에 맞게 선별하였다. 찬송가 역시 국가적이고 사회적 삶에서 종교가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생활이나 국경일, 민족적 축제와 절기에 관련지어 작곡하였다. - 리이츠에 따르면 이 모두는 종교가 학생들의 삶에서 구체성을 띠고 나타나게 하기 위함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종교는 학생들의 삶에 자연스러운 문화요 관습으로 자리 잡게끔 되었다. - 고귀하고 아름다운 성서본문, 이를테면 잠언이나 시편을 택하여 이를 끊임없이 낭독하고, 이를 생활에 적용하도록 하며, 아울러 교리문답서 해설이나 찬송가를 즐겨 읽고 노래하게 한다.

⑩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는 개개인의 삶에 다가갈 수 있는 방식으로, 이를테면 매일같이 드리는 기도를 통해, 기도 안에서 자기 안을 내밀히 들여다보고, 책임을 느끼고, 이상을 바라보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개인은 종종 그리움이나 슬픔, 기쁨이나 용기 또는 겁냄이 엄습하는 체험에 맞닥뜨리는가 하면 후회하고 결심하기도 한다. 이때를 본래적 종교수업으로 간주한다. 보통의 경우 아이들은 흔히 죄에 대한 설교를 통해 흔히 기만을 당하고, 이 세상의 삶이나 재물을 무가치하게 여기도록 무분별하게 이끌어지는 경향이 있다. - 리이츠는 이것이야말로 아이들을 종교적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런 것은 용기를 주기보다는 잃게 하고, 도덕적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대신에, 나태

8) 이런 주제는 이미 코메니우스가 언급한 바 있다. J.A. Comenius, The Grate Didactic, 정학실역, 《대교수학》, 서울: 교육과학사, 1992, 225-231쪽.

9) 리이츠의 이런 제안은 오늘날 많이 거론되는 프로젝트법이나 그물망수업 내지 통합교과수업을 위한 선구적 작업에 해당한다.

하고 게으르게 만든다는 것이었다.

⑪ 요컨대 전원학사의 종교수업은 관습적 체제에서와는 달리, 교사와 학생을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다가가고 연합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3) 요약과 논평

리이츠는 자신의 접근 방식이 당시 독일에서만이 아니라, 유럽대륙 전역에서, 나아가서 그 경계를 넘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았다. 오늘날 다양한 전원학사들에서는 이러한 리이츠의 입장의 맥락에서 혹은 그와 흡사한 방향에서 종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시편 암송이나 교리문답의 무미건조한 전수 행위는 거절하고 그 대신, 개인의 일상적 삶 및 환경과 교우하는 방식을 통해서 종교적 체험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그 주된 관심사이다. 종교 학습과 자연 체험간의 관련성을 중시하는 점도 독특하다. 종교를 교회 전승 뿐 아니라 고유한 민족적, 문화적 정서와 관련지어 제시하려 한 점은 인상적이다. 도덕은 여기서 종교교육과 긴히 연관을 맺고 나타나며, 언어적 교설을 통해서가 아니라, 삶의 교류와 모범을 통해서, 자기교육을 통해서, 공동적·책임적 사유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행위를 통해서 학습된다. 이 점은 일정 부분 페스탈로찌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다.¹⁰⁾

2. 칼 요제프 라이프레히트 학교(Carl-Joseph-Leiprecht-Schule)의 통전적 교육 사례

“카를 요제프 라이프레히트 학교”는 근래 독일에서 시도되고 있는 가톨릭계 종립대안학교 중 하나이다. 원래 이 학교는 1969년 설립·운영되어 왔다. 그러던 중 학교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한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1983년 4월 25일 개최된 가톨릭 학교 교장회의에서 그러한 변화를 담지해낼 만한 실험과정을 도입하기 위한 결정이 내려졌다. 1983/84 학년도에 들어서서 많은 교사들이 이 구상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1-9학년까지의 실험적 구도를 잡아냈고, 나아가서 다양한 개혁학교를 탐방하여 얻은 통찰과 관점으로 이 구도를 새로이 개정·보완하였다. 1984년 7월 18일 잠정적인 형태의 마르히탈 계획이 성안되었고, 이어서 이 계획은 1984/5학년도에 처음 실험에 들어갔다. 두 차례에 걸친 수정작업 끝에 1987년 12월12일을 기점으로 공식적으로 출발하였다. 이 계획의 기본 틀은 베르톨트 자움(Bertold Saup)이 구축하였다.¹¹⁾ 마르히탈 계획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학교를 특정한 기

10) H.-U. Grunder, “Landerziehungsheim-Gründergestalten und Konzeptionen”, in: Reformpädagogik und Schulreform in Europa. Bd. 1, hrsg. v. M. Seyfrath-Stubenrauch · E. Skiera, Hohengehren 1996, S. 223.

11) B. Saup, Zur Freiheit berufen. Zur Dimension des Ethischen im Marchtaler Plan, Frankfurt am Main 1994, S.153-155. 1990년에는 로텐부르크-쉬투트가르트 교구에 소재한 이 자유학교에 대한 해설서로 “마르히탈 계획”이라는 2권의 책으로 출간되었고 (Bischöflicher Schulamt der Diözese Rottenburg-Stuttgart(Hrsg.), Marchtaler Plan. Erziehungs- und Bildungsplan für die Katholischen Freien Grund- und Hauptschulen in der Diözese Rottenburg-Stuttgart. Bd 1./II. Rottenburg 1990), 1992년에는 “성찰”(Reflexionen zum Marchtaler Plan,

독교종립대안교육적 시각에서 재구조화하기 위한 계획으로, 1-9학년 학생들을 초등학교(Grundschule)와 주요학교(Hauptschule)¹²⁾로 연결된 한 울타리 안에 묶어 하나의 완결되고 수미일관한 구조 속에서 교육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마르히탈 계획학교”라 약칭한다.

마르히탈 계획학교는 스스로를 대안학교로 이해한다. 마르히탈 계획학교는 이런 뜻에서 교육행위 전체를 종교라는 터에 기초하도록 함으로써 종교를 모든 교육의 중심에 놓고자 하였으며, 그러면서도 종교교육을 포함하여 교육행위 전체를 어린이의 성정(性情)과 삶에 공명하며 호소력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이런 점에서 마르히탈 계획학교는 공립학교와 구별되며, 또한 전통적인 종교계 사립학교와도 구별된다. 어린이의 성정과 삶에 공명하는 교육을 표방한다는 관점에서 종립대안학교는 일반대안학교와 궤적을 같이 한다. 모든 현대적 대안학교교육의 정신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엽에 걸쳐 개화되었던 개혁교육학(Reformpädagogik)에 일정부분 뿌리를 두고 있다. 마르히탈 계획학교는 다음 세가지 주된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¹³⁾

① 오늘날 “좋은 학교”에 적합한 교육과 지식 학습이 가능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통전적 교육,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인격적이지, 사회적 교육이 가능한 교육을 말하는 데, 육체와 정신적 소질의 발전, 사회적 참여와 사회 안에서의 협동을 통한 삶의 조화로운 전개와 축진을 지향한다.

③ 윤리와 종교교육: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격적으로 수행(遂行)된 믿음을 배우도록 이끌되, 인간됨을 형성하며, 궁극적으로 희망 안에서 살아가도록 한다.

마르히탈 계획이 발전시킨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과정은 다음 네가지 특징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¹⁴⁾

① 그물망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구조 (Der Vernetzter Unterricht)

② 자유학습 - 자유침묵학습 (Die Freiarbeit - Freie Stillarbeit)

③ 월요일 아침모임 (Der Morgenkreis)

④ 학과별 수업 (Der Fachunterricht)

Rottenburg 1992)이라는 제목으로 그 보충적인 자료가 역시 출간되었다. 이하 본 자료에 관련된 인용은 저자명 만 표기. 아울러 Marchtaler Plan, Erziehungs- und Bildungsplan für die katholischen Freien Grund- und Hauptschulen in der Diözese Rottenburg-Stuttgart의 경우 역시 이하 마르히탈 플란(Marchtaler Plan)으로만 표기.

12) 독일에서 초등학교(Grundschule)는 4년제로 운영된다. 주요학교(Hauptschule)란 직업교육과 직업 활동을 위한 학교로 초등학교에 이어 주(州)에 따라 9~10학년으로 마친다.

13) B. Saup, Zur Freiheit berufen, a.a.O., S.155-156.

14) B. Saup, Zur Freiheit berufen, a.a.O., S.156-165.

1) 그물망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구조

마르히탈 계획 학교의 면모를 가장 특징적으로 대변해 주는 것은 “그물망으로 엮은 교육과정 및 학습구조”(이하 “그물망 교육과정”)¹⁵⁾이다. 그물망 교육과정은 가톨릭 대안학교가 그 기본 원리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인간을 통전적 관점에서 교육하려는 교육과정을 일컫는다. “통전성”(Ganzheitlichkeit)이란 여기서 현실과 현상의 전체성을 가리킨다. 한편으로 피조세계 전체를 지칭하며 나아가서 내재와 초월, 전면에 나타난 것과 배후에 있는 것 모두를 포괄하며, 다른 한편으로 인격으로서의 아동의 전체적 면모, 따라서 전인성을 지향한다. 이런 점에서 통전적 교육이란 그러한 면을 두루 고려하여 수행되는 특정한 교육 행위를 말한다.

그물망 교육과정은 매 시간마다 학생이라는 인격(Person)과 도야재(Sache bzw. Inhalt)가 서로 일정한 연관성 안에서 맞닥뜨리는 상황을 출발점으로 한다. 교육과정과 수업의 질은 이 양자간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져 생산적 성과를 내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 그래서 이 구상은 아직도 도처에 남아있는 19세기 형 학과교육의 경계를 넘어서려 한다. 요컨대 그물망 교육과정은 “문제, 다시 말해서 다루는 내용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즉 그들 내용 안에 들어있는 양상을 학과 간 경계를 넘어서서 지속시키고, 그렇게 하여 전체적 지평 위에서 그물망 구조를 통해 함께 엮어내려 한다. 학과의 대상, 그들 내용간의 상호작용, 그 신학적·윤리적·사회적 및 인격적 의미, 상황과 어른들의 요구같은 것들 모두를 해당 수업시간에 통합적으로 다루어보려는 것이다.”

이 구조 안에서 아동은 도야재를 사물 인식 지평을 넘어서서 만남의 문제로서 받아들이며, 그리하여 양자는 다음과 같은 “대화적 관계”로 들어간다. 즉 인격으로서의 학생과 수업내용은 상호 수평적 관계에서 양측을 이루고, 이들은 다시금 각각 학문영역들과 관련을 갖도록 배치된다. 각 지점은 다시금 상호 연결된다. 이 교육과정에서 아동이 경험하는 세가지 차원의 대화적 관계구조가 있다: ① “세계”에 대한 대화적 관계구조, ② “공동인간성”의 문제, ③ “신”에 대한 대화적 관계구조.

2) 자유학습 - 자유침묵학습

그물망 교육과정과 아울러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은 자유학습(자유침묵학습)이다.¹⁶⁾ 이는 요컨대 “자기 활동적인 수업”을 말한다. 이는 어떤 부수적인 수업형태나 방법론적으로 고안된 기교 (동기부여를 위한)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의 학교를 추구하려는 의도의 표현이다. 이 방안은 몬테소리(M. Montessori) 교육론을 기본 모형으로 한 것이다. 그 의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 도야”와 “자기 실현”의 원리라 할 수 있는데, 그녀는 자신의 관점을 종종 다음과 같은 기도문으로 표현하였다: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도

15) B. Saup, Zur Freiheit berufen, a.a.O., S.157-160.

16) B. Saup, Zur Freiheit berufen, a.a.O., S.160-162.

록 나를 도우소서.”

몬테소리 교육은 교리문답을 통한 전승의 충실한 이행을 목표로 삼는 전통적 가톨릭 교육과는 명백히 다르다. 마르히탈 계획 학교가 지향하는 “자유학습”이란 역시 이렇게 몬테소리적 의미에서 자기 역할에 대한 전적으로 새로운 지향성을 의미한다. 베르톨트 자웁은 그 본래적 뜻을 갈라디아서 5:13에서 말하는 “자유”에서 찾으려 한다. 이는 아동을 둘러싼 자유문제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아동 안에서 솟구치는 자유의 힘과 그 힘의 궁극적 근거에 대한 인식을 뜻한다. 이는 결코 제멋대로의 “방만한 자유”가 아니라 타자(他者) 내지 절대 타자(絶代 他者/神)에게 “묶여서 작용하는 자유”로,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책임성으로부터 행동하도록 하는 자유이다. 자유학습이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이들 인격의 본연적 성장과 형성(本然的 成長과 形成)이다. 그 구체적 특징은 다음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학습 주제를 자유로이 선택하기, 학습을 자유로이 나누어 수행하기, 시간을 자유로이 나누어 사용하기, 학습 동료를 자유로이 선택하기¹⁷⁾

3) 월요일 아침모임

“월요일 아침모임”(이하 “아침모임”)¹⁸⁾은 일찍이 예나 계획 학교(Jena-Plan-Schule)에서 그 기본 원칙이 천명된 것¹⁹⁾인데, 매주 처음을 여는 월요일 아침 시간을 하늘로부터 새로이 선사된 은사 및 과제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아이들은 “율동”(律動, Rhythmus)과 “제의”(祭儀, Ritus)와 “명상”(冥想, Meditation)을 연습하면서 자라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침 모임에서는 먼저 아이들이 서로 어우러져 빙 둘러앉는다. 여기서 원(圓, Kreis)은 공동체와 귀속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원 밖에 서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원의 중심에는 종종 촛불이나 꽃병 등을 놓아둔다. 이렇게 하면서 주위(周圍)는 차츰 고요해지고, 자연스레 침묵(沈默)의 분위기가 조성된다. 아이들은 원 안에서 긴장을 풀고 마음을 안정시킨다. 이 시간에 반복해서 참여하게 되면 아이들은 차츰 고요함에 익숙해지고 자기 성찰적인 태도를 배우게 된다.

아침모임은 정규 수업시간이 아니다. 때문에 이 시간은 상황과 주제에 따라 그 내용이 다양할 수 있다. 이 시간은 학생들과 교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간다. 고요한 태도를 연습하기, 의사소통의 기본태도와 형식, 감각의 연습, 실제 사건에 관련지어 성찰하기, 학급 안의 문제 상황을 가지고 작업하기 등이 주로 다루어진다. 하지만 그 결정적 성격은 종교적 차원에 있다. 이를테면 교회 절기에 맞추어 살도록 한다든지(절기의 신학적 의미, 그 상징적 의미, 실제 교회생활에 합치하는 의미를 제시하고 이를 이해하고 체험하도록 하기), 성서본

17) A. Hinz, “Marchtaler Plan”, a.a.O., S.33-34.

18) B. Saup, Zur Freiheit berufen, a.a.O., S.162-164.

19) P. Petersen, Der kleine Jena-Plan, Weinheim und Basel 1980(1927).

문을 토대로 이를 역사적으로 진술하고 그것이 오늘날 아동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다루어 보고, 기독교적 삶의 양식을 배운다든지, 자기만의 독특한 삶을 형성하도록 이끈다든지, 혹은 좀더 깊은 차원에서 기독교적 실존의 윤리에 직면하게 한다든지 등등, 여러 주제들이 가능하다. 이 행위들은 초기 단계에서는 아직 본래적 의미에서 명상적 태도라고는 할 수도 없고, 실제로 깊은 기도가 자아내는 내면적 침묵행위 (內面的 沈默行爲, “das Schweigen des Gebets”) 라고도 할 수 없지만, 그러한 방향을 지향하거나 그 전 단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되풀이하여 이 시간에 참여하면서 아이들은 아마도 작은 형태의, 하지만 본래적 의미에서 “명상”적 태도를 배우도록 이끌린다. 이 시간에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육체적-정신적-영혼적 전체성을 바탕으로 한 참여이다. 종래의 수업구조가 늘 강조해 오던 폐해, 즉 지적인 일면화를 극복하여 근본적으로 전체적 면모를 갖춘 인간, 즉 참다운 인간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모든 노력에서 인상적인 것은 마르히탈 계획학교가 이 주제를 학교 일상의 강제적 의무와 학습이 주는 부담을 핑계 삼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학과별 수업

학과별 수업²⁰⁾이란 그물망으로 엮지 않은 학과목수업을 말한다. 수학, 체육, 영어 같은 과목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여기서도 어떤 특징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데, 학과목들 역시 그물망에 전혀 관계없이 분리되어 남아있지 않도록 하기 때문이다. 개별 학과들로 하여금 어떤 식으로든 통전적 구조에 관련을 맺도록 한다는 뜻이다. 그물망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모든 학과수업과 다른 학교활동은 전문화된 지식을 사리(事理)에 맞게 철저히 가르치고, 항상 학교활동의 배후와 그 초월적 배경에 관계짓도록 한다. 학과의 전문적 내용은 보다 확대된 의미 지평에 집어넣고 현실의 전체적 시야를 주도해 나가도록 한다. 세계의 배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관해 이야기 하는 것은 - 세계와 인간에 관한 전체 진리를 받아들이고 말하기 위한 - 이 학교교육이 지향하는 바, 초월에 대한 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다.

자음은 이상 네 가지 요소를 설정하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 그물망 교육과정에 유명한 칸트(Immanuel Kant)의 물음 - 지식, 행동, 희망 -이 함축하는 성격을 부여한다. 다시 말해서 “문제의 객관성,” “윤리,” “신앙”은 마르히탈 계획학교교육이 담고 있는 세가지 발판이다.

5) 요약과 논평

가톨릭종립대안학교로서 마르히탈 계획학교(카를 요제프 라이프레히트 학교)는 일반학교와 전통적인 기독교종립학교 사이에서 스스로를 특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분명

20) B. Saup, Zur Freiheit berufen, a.a.O., S.164-165.

변화하는 시대 정황 속에서 독일 가톨릭 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자기 갱신의 한 의미심장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 노력에는 의심할 여지없이 20세기 서구 정신사가 탄생시킨 개혁 교육학(Reformpädagogik)의 혼과 현대적 문제의식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독일 개신교 교육에서 이런 시도와 견줄만 한 것으로는 구 동독의 정치적 중심지 라이프찌히 시에서 1991년에 세워진 “라이프찌히 학교센터”(Evangelisches Schulzentrum-Evangelisches Schulzentrum Leipzig-Versuch einer Standortbestimmung, hrsg. v. B. Jung, Leipzig 1998)라 할 수 있다.

대안교육이 국가주도적 공교육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하고, 나름대로의 교육을 구현하고자 했을 때 그 내용은 역시 자유였다. 교과과정의 자유와 교수·학습과정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누려야 할 자유는 시종일관된 주제였다. 그러나 여기서 자유는 “제멋대로 하기”와는 다른 의미에서 일정한 책임으로 묶인 자유를 말한다. “지식”은 그런 의미에서 자유의 향유라는 이름으로 소홀히 되지 않는다. 기초학력의 습득은 불가결한 요구사항이다. 그러나 이 지식을 늘 개개인의 삶의 문제와 관련지어 다루도록 함으로써 “지혜”가 중심적 과제가 되도록 하였던 바,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이를 통해 마르히탈 계획학교는 바로 통전적 교육 이념을 표방하고자 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그물망 교육과정”을 발전시켰다.

“통전적 교육”은 마르히탈 계획학교를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통전적 교육은 오늘날 북미(캐나다와 미국)에서, 중미에서, 아시아(일본과 한국, 호주 등지)와 유럽지역(영국, 스웨덴, 독일 등)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처럼, 현대를 대표하는 시대 정신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이를테면 1988년 이래 캐나다의 존 밀러(John Miller)를 중심으로²¹⁾ 형성, 급속한 발전을 보고 있는 “홀리스틱 교육학회”의 의욕적인 노력은 이러한 시도에 비견되는 것이다. 이런 최근의 시도들은 그 뿌리를 고전적 모형에 둔 것이다. 프리드리히 프뢰벨(Friedrich Fröbel)의 낭만주의 교육학이 18-19세기가 낳은 세기적 걸작에 속하는 것이라면, 20세기 초엽의 작품으로서는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의 발도르프 교육학(Waldorfpädagogik)이 있으며, 아울러 파울 오스발트(Paul Oswald)가 언급한 것처럼 마리아 몬테소리의 “우주적 교육”론과 같이 널리 알려진 견해²²⁾도 있다.

이 통전적 교육과정의 성격을 간추려 보자면 이러하다. 즉 모든 학교생활과 각 교과 영역은 전체 구조 안에서 상호 관련지어질 뿐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초월적 차원과도 관련지어지고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해서 초월적 지평이 현세적 영역과 별개로 구분되지 않고 현세적 영역 안에서 감지되고 독해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이 초월성을 전제하지 않는 교육적 전체성은 온전한 의미에서 결코 그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교육학은 여기서 단순한 과학이 아니라, 과학 이상의 사안으로 파악된다.

교육학을 과학과, 다른 한편 과학을 넘어선 지평 사이에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문제의식

21) 예컨대 John P. Miller의 최근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Education and the Soul. Toward a Spiritual Curriculum*,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0.

22) P. Oswald, “Kosmische Erziehung”, in: *Beiträge zur Montessori-Pädagogik*, hrsg.v. Schield · Weidlich, Stuttgart 1977.

은 일찍이 에두아르트 쉬프랑어(Eduard Spranger)가 1900년대 초엽부터 나타낸 것으로, 만년의 작품 “Ist Pädagogik eine Wissenschaft?” (1953, Gesammelte Schriften I, hrsg.v. A. Flitner · G.Bräuer, Heidelberg, 1969, S. 350)에서 그 요체를 대할 수 있다. 오늘날 교육학계에서 그 의미가 과대하게 부풀려진 실증주의적 사고와의 논쟁이라는 점에서 1900년 초엽 이래 전개되고 있는 사유의 흐름과 논쟁점을 잘 포착해 내는 것은, 현대 학교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어느 모로 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3. 발도르프학교(Waldorfschule)의 자유종교교육 사례

1) “자유로운 기독교 종교수업”

발도르프 학교에서 시행하는 종교교육의 관점은 특이하다. 이 학교의 창설자인 루돌프 쉬타이너 (R. Steiner)는 특정한 점에서 인지학적 기독교²³⁾라는 독특한 종교적 세계관 위에서 이 학교 종교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쉬타이너는 소위 현대문명이 과학의 발전으로 이전 시대와 비교해서 엄청난 위업을 이루었지만, 반면에 하나의 위험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음을 적시하려 하였다. 그것은 현대과학이 외부적 자료에 의한 지적 사고에 고착되어 있음으로, 인간의 내면적·영적 사실을 간과하는 데 이르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또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종교 없이 자라는 아이들은 다만 물질주의에 함몰되는 위험에 처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정황에서 인간형성의 참된 과제는 상실되고 만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종교가 모든 삶과 교육행위의 토대를 이루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 의미를 밝히려 하였다.²⁴⁾

쉬타이너는 종교는 강조하였지만 자신의 종교적 세계관만을 배타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다. 이런 점에서 쉬타이너는 전통적인 기독교 종립학교 수업에 동의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교회공동체가 세계에 대하여 문화 적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종교와 문화가 서로 불가 분리하게 얽혀있음을 깊이 인식했다. 이것이 다른 기독교 학교의 종교교육과 구별되는 점이다. 오늘날 이 학교에서는 종교 단체 간의 논쟁에 개입하지는 않고, 그 대신 세계 안의 위대한 모든 종교가 가진 힘의 가치를 고루 인정하면서, 종교를 모든 인간 형성과 도덕과 사회적 행동을 형성하기 위한 기초로 여긴다. - 때문에 오늘날 이 학교에서는 입학 면접시험 때 부모가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 혹은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 묻는다. 아울러 이 학교에 입학하는 가정 중 혹 누구라도 만일 종교교육을 원치 않거나 거

23) 인지학(Anthroposophie)이란 쉬타이너가 신지학을 배경으로 하여 창안한 사상체계로서 감각적 현상에 나타난 정신적 형상들을 파악하기 위한 과학적 인식의 길을 말한다. 이 맥락에 있어 쉬타이너 사상에 대한 좀더 상세한 논의는 이은선, <루돌프 슈타이너의 신지학과 교육>, 《교육철학》제 19호, 1998, 199-218 쪽과 여기 소개된 문헌 목록 참조.

24) C. Bohlen, “Rudolf Steiner-Pädagogik und religiöse Erziehung”, in: Anthroposophie und Christentum. Eine kritisch-konstruktive Auseinandersetzung, hrsg. v. J. Müller, Freiburg · Schweiz 1995, S.114-120.

부한다면, 종교성이 배제된 어떤 교육도 해로운 것이라는 입장을 주지시킨다.

이 방향에서 학교가 중시하는 관점은 어린 나이에 특정한 종교를 주지시키려 하기보다는, 젊은이가 되어 보다 성숙한 연령에서 종교적 고백을 선택하거나 거절하기 위한 자유로운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포괄적인 기초를 닦도록 하는데 있다. 쉬타이너는 종교교육에서 보다 중요한 것을 아이의 "정신적 자유로움"으로 보았다.

종교수업의 선택은 종교와 종파의 상이성을 고려하여 학부모의 결정과 연령층에 따라 학생의 결정에 맡긴다. 가톨릭, 개신교, 발도르프 인지학 기독교공동체의 신자들은 학교 안에 설치된 시간표에 따라 종교 수업을 받는다. 최근에는 유대교와 이슬람교 가정의 어린이들을 위한 종교 수업 기회도 마련하였다. 만일 지원자 수가 적은 경우에는 협의하여 학교 밖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도록 한다. 어떤 종교수업도 받지 않으려는 학생에 대하여서는 발도르프 학교만이 가진 자유로운 "기독교 종교수업"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발도르프 교육학 원리에 따라 구성되어 있고, 모든 학업단계에서 발전된 수평적·수직적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된다. 수평적이라 함은 기독교를 넘어서 다른 종교와 문화에 개방적으로 다가가도록 돕는 구조를 말하고, 수직적이라 함은 학생의 종교에 대한 내적 정황과 심리 구조를 고려한다는 뜻이다.²⁵⁾

2) 자유로운 기독교종교수업의 행정구조

① 이 학교가 보다 중시하는 관점은 종교를 삶의 전체적 차원에 두루 발견하고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목이 아니라, 학교수업의 다양한 과목들에서 그 핵심을 반영하도록 하는 과제가 중요하다. 종교는 실존적 필요성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전인교육은 종교에서 비로소 결정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종교는 이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감정과 의지의 문제라는 관점이 여기서 중요하다.

② 자유로운 기독교 종교수업에서는 인지학적 해석의 관점이 결부된다. 여기서는 율희, 재생, 업, 신 및 그리스도 이해 등의 문제가 다루어진다.

③ 만일 이러한 자유로운 기독교 종교수업에 공감한다면 이 학생들은 인지학적 기독교공동체에서 세례와 견진례를 받게 된다.

④ 종교과목은 매주 한 시간 혹은 여분의 시간을 이용하여 가르친다. 매주 종교 시간 외에 8학년까지 일요일에는 "이 학교만이 발전시킨 특수한 형태의 종교수업시간"에 참여하도록 한다.

⑤ 이 수업은 학교교사가 아니라 인지학 기독교 공동체의 사역자가 담당한다.²⁶⁾

3) 자유로운 기독교종교수업의 기본 목표와 학습내용 및 방법의 구조²⁷⁾

25) J. Müller, "Anthroposophische Erziehung und christlicher Religionsunterricht an Waldorfschulen", in: Anthroposophie und Christentum, S. 120-121.

26) J. Müller, "Anthroposophische Erziehung und christlicher Religionsunterricht an Waldorfschulen" a.a.O.

① 기독교 전승(사화, 구약과 신약)의 요체를 알게 하는 과제를 기본 틀로 삼는다.

② 그리스도 사건 뿐 아니라 세계의 다른 위대한 종교 현상이 함축하는 신비적인 차원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도록 한다. 신적인 것, 인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앞에서의 경외감을 가지도록 한다.

③ 앞 항목의 마지막 부분, 자연에 대한 보론: 모든 자연에 정신적인 것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가지도록 해주고, 자연이라는 사실에서 신적 지혜가 표현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보통 제도적 교회교육이 자연을 간과하는데 비해, 여기서 자연이 함축하는 종교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눈여겨 볼 만 한 점이다.

④ 교회의 전승과 관련된 다양한 절기행사 및 축제들 이를테면 추수감사, 가을축제, 니콜라우스 및 성탄절 촛불축제, 동방박사 축제, 겨울추방, 사육제전, 로젠몬탁(Rossenmontag, 사육제 중 월요일), 부활절, 오순절, 성 요한 축일, 여름 축제 등은 학생들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종교적 감각 능력을 활발하게 하는 가치를 지닌다.

⑤ 일반 문화나 성인의 전설, 동화와 신화적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을 제시한다. 이는 인간이 전인으로 자라나도록 돕기 위한 매우 중요한 소재이다. 또 이 소재들에서 종교적 소재를 끌어내고 이를 다시금 성서적 주제와 비교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내용을 풍부하게 경험하도록 한다. 이러한 독특한 접근 방식에는 종교와 문화가 동일한 의미구조를 통해 서로 얽혀 있다는 인식이 배경을 이룬다.

⑥ 종교 수업에서는 현재 생활에서의 윤리적 물음, 개개인의 양심과 내적 책임, 이력사와 전기를 근거로 한 운명에 관한 물음, 젊은이의 삶의 결단을 준비하도록 하는 문제 등을 중요하게 다룬다.

⑦ 심리발달 단계에 따른 이해력 뿐 아니라, 학생들의 정신적 욕구 및 물음에 부응하고 응답하는 관점을 취한다.

⑧ 신앙내용을 감각기관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말, 그림, 몸짓 등을 많이 활용한다. 직관 수업은 예술을 매체로 하는 수업과 종종 관련짓는다. 예술은 이 학교의 모든 수업과정을 관통하며 역시 종교수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4) 요약과 논평

발도르프 학교는 일반 공교육제도에 대해서나 선교를 목적으로 세워진 미션스쿨의 종교 교육에 대해서나 모두 논쟁거리를 제공한다. 전자에 있어서 종교는 공적 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배제되고 있는 반면 발도르프 학교는 이를 모든 교육의 기초로 삼고 있기 때문이고, 후자에 있어서는 기독교의 절대성이 끊임없이 강조되는 반면, 여기서는 아이들이 기독교뿐 아니라 다른 위대한 세계종교들에 편견 없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돕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슈타이너 자신의 입장에서는 기독교를 모든 종교의 정점에 올려놓고 있지만 - 이 점에 있

어서는 오늘날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관계에 있어 포괄주의적 입장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이러한 자신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자유롭게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처음부터 열어놓고 있음은 유의해 볼 만한 일이다. 이렇게 하여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다른 학교에서와는 달리 학생들 간에 종교에 대한 폭넓은 관심사가 형성되어 있다.

이곳은 종교교육에 있어서도 학생의 자유가 뜨거운 쟁점이 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이 주제는 쉬타이너의 독특한 발달심리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종교교육 전반에서 직관과 예술적 방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은 인상적이다. 자연과 역사, 문화와 종교가 어떻게 피차 얽혀져 작용하는지에 대한 문제 인식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시도는 다른 종립학교나 교회교육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발도르프 학교의 자유로운 기독교 종교수업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인지학적 세계관은 우리 현실에 있어서는 논쟁거리가 될 소지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 교육이 학생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발전시키고 있는 접근 방식들은 매우 도전적이며 흥미롭다.

현재 유럽에서는 발도르프 종교교육과 기존의 기독교교육기관 사이에 거리두기와 비판적 논쟁 뿐 아니라 생산적인 교류와 대화도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이 현재 우리나라의 종립학교를 비롯하여 다양한 제도권 기독교교육현장에 있어서 말해줄 수 있는 바는 적지 않아 보인다.

III. 결론을 대신하여: 사례들이 함축하는 주제들의 현대적 의미 평가와 전망

이 자리에서는 앞서 소개한 사례들의 성격과 특징을 서로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간추려 보고, 우리나라 학교들의 종교교육적 상황을 위해 유의미한 단서들을 쟁점별로 다루어 본다. 마지막으로 감리교종립대안학교인 “산돌학교” 사례를 통해서 자유종교교육에 관한 필자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힌다.

1. 주제들에 대한 의미 평가

(1) 종교교육에서 자유문제는 한편에서는 정치적 견지에서, 다른 한편에서는 교육학적 견지에서 해명되어야 한다. 앞서 거론한 종교계 사립학교들은 한결 같이 정치적 자유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 조건 하에서 교육학적 자유 역시 정당하게 발전시키고 있다. 이들 학교에서 교육학적 견지에서 발전시키고 있는 자유라는 주제는 아동중심주의에 경도한 개혁교육학(독일) 내지 진보주의 학파(미국)의 노선이나 알렉산더 니일(Alexander N. Neill)의 섬머힐 스쿨(영국) 등에서 말하는 “자유” 개념과는 달리 신학적 개념과 기독교 인문주의 교육사상

적 맥에서 특징화되어 있다. 이들 종립대안학교들에서는 거의가 자기 자신과 공동체와 초월적 가치에 “묶인” 책임적인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예컨대 전원학사 같은 경우 종교 수업교재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 쓰는 데 여기서 학생의 자유는 그런 협력 활동 구조를 통해서 조건화되어 있다.²⁸⁾

(2) 종교교육을 종교적 교리 체계에 의해서 뿐 아니라 ‘내적 종교성’을 발현시키는 문제로서 접근하려는 관점은 일찍이 쉴라이에르마허(F.Schleiermacher), 루소(J.-J. Rousseau), 페스탈로찌(J.H.Pestalozzi), 프리벨(F.Fröbel) 등에게서 주제화 되었거니와 20세기 개혁교육운동에서도 의미 깊게 발전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결같이 종교가 학생들 삶의 현실성과는 동떨어져 가르쳐지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이것이 특히 ‘일상생활’과 또한 이성으로 파헤칠 수 없는 삶의 ‘깊이’라는 맥락에서 어떻게 경험될 수 있겠는지를 문제 삼으려 한다.

(3) 사례들이 보여주는 바 통합학습법이나 프로젝트법에 따른 종교수업 방식은 우리의 종립학교들이 눈여겨 볼만한 주제이다.

(4) 교회와 학교, 지역사회를 통전적 구조 안에 묶는 학습법은 종교교육을 종종 학교 안으로만 집중시켜 다루기 일쑤인 우리네 시각에 시사하는 바 적지 않다.

(5) ‘자연’과 관련된 종교체험은 종래의 종교수업에서 간과되고 있는 주제로, 이것 역시 지금까지 상당부분 교리적 틀에 의해 규정 당해 온 우리 종교교육 현장에 대해 말해주는 바 적지 않다. 아마도 자연신학적 사고는 이 대목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6) 기독교적 명상과 노작교육 문제가 종교교육과 관련지어 나타나는 점은 특히 흥미롭다.

(7) 이들 사례 모두에서 종교교육은 예술교육과 의미 깊게 관련지어져 다루어지고 있다. 예술은 감정에 호소하는 사안인 바, 이는 이들 학교가 종교를 감정과 긴히 연관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여기서 교육을 예술로 이해하는 발도르프 학교의 자유종교교육이 상당 부분 우리의 상상력을 풍부하게 자극하며 창조적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점에 있어 우리 종립학교 상황은 매우 열악해 보인다.

(8) 발도르프 학교 종교교육 사례는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일련의 다원주의적 종교교육의 시도들²⁹⁾과도 흥미로운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발도르프 학교의 접근 방식과 흡사한 사례로 덴마크의 프리스콜레(friskole - 자유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자유종교교육 방식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신앙과 회심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들에 대한 “이해”, 즉 종교적 세계의 문을 열어주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

(9) 우리네 옛 전승에서, 이를테면 퇴계 이황의 신유학적 학문체계에서는 앞서 거론한 학

28) 비 종립 대안학교에서 그와 흡사한 사례로는 셀레스탱 프레네(Célestin Freinet, 프랑스)의 협력적 “자유 학습” 개념을 들 수 있다. 예컨대 교사와 학생이 일주일마다 함께 짜는 시간표 등. D. Baillet, Freinet-praktisch. Beispiele und Berichte aus Grundschule und Sekundarstufe, 송순재·권순주 역, 《프레네 교육학에 기초한 학교 만들기》, 인천: 내일을 여는 책, 2002; 성장학교 별 (위음): 《프레네 학교 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별 2006, 1부 1~2장, 2부 1장.

29) 이를테면 장종철, <다원문화적 종교교육의 신학적 접근>, 《신학과 세계》 제 38호, 1999, 245-282쪽.

교사례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개념과 주제들, 즉 자유, 그물망교육과정, 통전성, 초월과 신앙, 지식과 학력, 그리고 지혜와 명상, 예술 같은 주제들에 의미상 상응하거나 흡사한 것들을 부분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이 맥락에서 조선조 널리 융성했던 사학인 “서원”교육은 현대적으로 재조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우리나라 기독교 종립대안학교들은 한편으로 우리네 종교교육적 전승과, 다른 한편으로 서구의 새로운 시도라는 양 방향에 손을 내밀어 대화를 벌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0) 사찰의 불교적 수행 과정에서는 통전적 교육과 병행하는 구조가 나타난다. 원불교계통 학교에서 - 영산성지학교, 원경고등학교, 경주화랑고등학교 등 - 근래 이루어진 시도들은 우리의 맥락에서 매우 의미 깊어 보인다. 여기서 앞서 거론된 사상들은 평이한 언어로 풀어내지고 있으며 학교교육현장 일상에서도 생생하게 체현되고 있다. 이를테면 차츰 널리 알려지게 된 “마음공부”법은 앞서 가톨릭 종립대안학교의 아침 모임의 명상과 견주어 볼 수 있으며, 이 학교가 표방하는 “원”(圓)이라는 개념 역시 통전성이라는 시각에서 재해석 가능하다.

(11) 우리나라에서 앞서 거론한 유럽적 시도들과 전적으로 동일한 맥락에서 있지는 않더라도 상당부분 개방적인 형태를 발전시키고 있는 사례들로서 이화여고(서울 정동), 배재고교(서울 강동구), 영란여자중학교(서울 망우리), 한울중학교(충남 온양)의 종교교육 현장을 들어볼 수 있겠다.³⁰⁾

(12) 자유종교교육이라는 입장에서 있으면서 자기 자신만의 문화적 토양에 충실한 사고와 실천을 모색하는 노력은 긴요하다. 서구 기독교 문화에 대한 우리 기독교 문화의 종속구조가 바로 그런 문제이다. 다양한 종교교육 현장에서 마주치는 노래, 풍속, 언어사용, 삶의 양식 같은 것들로 예증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미국에서 유입된 다양한 형태의 “찬양집회”가 청소년들에게 호소력을 가지는 반면, 종교적 주제를 우리가락과 예술양식에서 풀어내고 체험하는 가능성은 비교적 왜소하게 남아 있다. 이는 이미 파울로 프레이리(P. Freire)가 중남미 상황을 기초로 주제화했던 바와 같다.³¹⁾

30) 오랫동안 개신교 중등학교들에서 종교를 가르쳤던 류상태 목사의 종교교육 사례는 여기서 특히 언급할 만한데, 그 문제의식은 최근의 저서 『청소년을 위한 종교이야기. 세계종교의 문을 열다』, 인물과사상사, 2005에 잘 드러나 있다.

31) 현재로서는 다만 몇몇 예외적인 사례들을 언급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영란중학교에서 이천진 교목은 국악찬송과 예배를 위한 독자적 모색을 거듭해가고 있다. 또 필자는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98년부터 배학기 “한국의 가무악”을 교양선택 과목으로 개설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한국인의 정서와 예술을 통한 기독교문화의 이해와 경험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는데 이 시도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있다. 이는 이정훈 목사와의 협력 학습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는 수년전부터 “성실문화원”을 설립 운영하면서 한국의 토착적 음악 예술과 예배와 기독교 교육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독창적인 안목을 가지고 연구·실천해 오고 있다. 이정훈의 관점과 의도는 그의 저서 《그리스도인을 위한 전통문화이야기》, 서울: 한들, 1999에 잘 나타나 있다. 이제 이 노력은 이미 현장의 젊은 목회자와 교사들에게 차츰 의미 있는 노력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접근 방식들은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현 학교 종교 교육적 상황을 좀 다른 시각에서 넘어서기 위한 것들이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학습자의 삶과 그 내면에 깃든 종교적 가능성에 눈을 열고 그런 점에서 근본적으로 대화적 자세를 견지하려는 것이자, 아울러 새로이 직면하게 된 다종교 문화 상황을 진지하게 고려하려는 것이다.³²⁾ 이런 관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회와 학교 기독교교육 현장에서 상당 부분 정당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도처에서 미해결의 문제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³³⁾

우리나라 가톨릭 학교들 중 상당수는 그 자체 내적 쇄신이나 자유 종교교육을 통한 자기 발전을 모색하는데 힘을 아끼지 않고 있다. - 이를테면 성심여중고(서울 원효로 소재)에서는 (공교육이 가지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근 그 설립자(마들렌 소피 바라, Madeleine Sophie Barat)의 개척적인 철학과 사상을 재발견하고 그 위에서 오늘날의 성심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여러 각도에서 - 교육철학의 심화, 교육방법의 쇄신, 교사교육 등 - 꾸준히 심도 깊게 모색하고 있다. 이런 식의 참신한 노력은 전국의 가톨릭 학교 도처에서 - 복자여고, 근화여고, 광주살레시오고, 논산 대건고 등 - 적지 않은 규모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공교육의 현황을 볼 때 주목할 만한 것이다. 마르히탈 계획학교는 여기서 좋은 대화 상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가톨릭교회가 이웃 종교와 향토 문화적 전통을 존중하는 입장을 표방하고 있는 한, 가톨릭계 학교들도 이런 노선에 서 있으며 이웃 종교학교들과의 대화와 협력에도 긍정적이다. 마르히탈 계획학교가 부분적으로 모형으로 삼았던 몬테 소리는 그러한 대화에 개방적인 사람이었으며, 특히 동양종교와 철학에 대해서 대화를 통한 배움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완숙하게 하였다. 이런 선례가 후학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적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론할 만한 것은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³⁴⁾의 종교교육 사례이다. 이 학교는 전통적 의미에서 비록 기독교 제도권 종교교육기관과는 구별되지만 - "무교회" 정신을 토대로 설립, 운영되어 왔다는 점에서 -, 한국의 문화적 토양에서 서구적 시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종교와 교육에 대한 매우 가치 있는 독특한 세계를 발전시켜왔기 때문이다. 그 철학과 방법론은 기존의 것들과 비교해 볼 때 이례적이다. 그 주요 특징은 예컨대 다음과 같다. ① 종교를 학습자 스스로 탐구하기(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② 종교를 교과에 한정 짓지 않고 학교에서의 삶 전체에 두루 관철하기, ③ 다원종교문화 상황을 고려하여 이웃종교와 대화적 자세(기독교 일방주의가 아니라)를 갖추기, ④ 생태적 영성을 일상적 삶의 과

32) 이러한 착상에서 R. Koerrenz · N. Collmar가 Die Religioin der Reformpädagogien, Weinheim 1994에서 묶어 펴낸 글들은 과거에 이루어졌지만 묻혀 있던 시도들을 발굴하여 오늘의 상황을 조명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깊다.

33) 교회적 맥락에서 앞서 소개한 논지들과 부분적으로 비교해 볼 만한 것으로는 M. Harris의 Fashion me a people, 고용수 역, 《회중형성과 변형을 위한 교육목회 커리큘럼》,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이 있다.

34) 충남 홍성군 홍동면 소재. 1958년 이찬갑과 주옥로가 설립하였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영성교육과 이웃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평민"을 교육의 모토로 하고 있다.

정에서 체현하기 등. 이 접근 방식은 앞서 소개한 서구적 모형들과 상당부분 비견될 만한 혹은 이를 넘어서는 수준의 자유종교교육의 내용을 갖추고 있어 상호 대화를 나눌 수 있리라 기대되며, 아울러 우리나라 종립학교들이 봉착해 있는 종교교육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역사적 사례로 평가할 만하다.³⁵⁾

다음 절에서는 자유종교교육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히기 위해서 감리교종립대안학교인 “산돌학교”(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357) 사례³⁶⁾를 소개한다.

2. 산돌학교의 자유종교교육 사례

이 자리에서 산돌학교 전체의 면모를 소개하기는 어렵고, 다만 학교의 이념적 지향성과 종교교육 교육과정의 기본 틀 정도를 간략히 거론하는 것 정도로 그친다.³⁷⁾

1) 산돌학교의 철학 - 이념적 지향성

(1) 산돌학교 설립의 이유: 입시와 살인적 경쟁구도 등 교육에 대한 정당한 관점과 가치관이 심히 왜곡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참되고, 살아있는 교육”을 위한 기독교 신앙의 본래적 과제와 그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2) 기독교적 영성 교육 - 대안교육을 말하는 또 하나의 이유: 산돌학교는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대안학교이자 종립대안학교임을 자처한다. 첫째, 공교육 안에서 기대하기 어렵거나 부재한 요소, 즉 기독교 종교적 가치와 관점을 정당하게 구현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국가가 제시하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초월적 영성을 모색하기 위한, 종교적 자유에 대한 대안을 뜻한다. 이 교육학은 달리 말해서 “영혼의 교육학”이라 할 수 있겠다. 둘째, 기존의 종립학교들이 전통과 규범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다면, 여기서는 청소년들을 종교적 세계로 인도해 들이고 그 세계에 눈을 뜨게 하는데(교리주의적 신앙고백이 아니라) 관심의 초점이 있다. 셋째, 종교가 종교교과수업 뿐 아니라, 교과목 전체와 교육과정 구조 전체, 그리고 학습자의 삶 전체에서 두루 경험되도록 한다. - 예컨대 화학과 국어에서 종교를 경험하도록 하리라든지.

(3) 교육의 인간학적 토대 - 자유: 전통적 기독교종립학교와는 달리 자라나는 인간에 대한 보다 다른 교육인간학적 인식과 관점에 입각하려는 바, 전통적 종립학교들이 타락한 인간의 어두운 면을 지나치게 부각하려는 경향이 있다면, 여기서는 인간이 하느님의 형상으로

35) 홍순명, 《폴무학교이야기》, 인천: 내일을 여는 책, 1998, 69-75, 166, 224, 227쪽. 아울러 홍순명, <교육의 기본을 살리자>.《처음처럼》 제 29호, 2002, 10-15쪽.

36) 산돌학교는 감리교단 본부 교육국과 감리교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소의 발의로 2002년부터 준비하여 2004년 3년 설립·운영되어 오고 있다. 중·고 통합형 5학년제 구조로 현재 상급 교사 8명(교장 포함) 비상근 교사 6명이 함께 일하고 있으며 학생 수는 2007년 입학생을 포함하여 80여명 정도이다.

37) 이하 이념적 지향성 부분은 자료집 <산돌학교 교육과정안> 참조.

서 본래 자유롭고 창조적인 존재임을 밝히면서 그러한 원천적 가능성이 발현되도록 한다. 청소년들의 창조적 자유는 바로 그 핵심 개념이다. 하지만 이 자유는 결코 방만한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의 양심과 하나님, 이웃과 사회 문화적 과제에 묶여 있는 책임적 자유를 뜻한다.

(4) 교육의 새로운 범주 - “통전성”(統全性): 통전성이란 다음 세 가지를 뜻한다. 첫째, 인간의 발달을 전체적(全體的)으로 또한 전면적(全面的)으로 - 머리, 가슴, 손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 있어서 - 인식하고 그 발달을 돕는다. 둘째, 인간을 그가 속한 환경 전체 - 타인, 사회, 문화, 우주 자연 전체와 영적 세계 - 와의 연관구조 속에서 이해하고 그 발달을 돕는다. 셋째, 개성(個性), 즉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에 내재한 고유한 성격과 발달의 법칙 - 을 교육의 출발점이고 최종 과제로 삼는다. 통전성은 한 사람의 고유한 세계가 가진 특정한 범위와 한계 속에서만 성취될 수 있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통전성이란 근대 교육이 어느 한 쪽을 강조하다 상실한 삶의 전체적 양상을 회복하자는 것이요, 성서가 말하는 참된 인간적 삶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한 개념이다.

(5) 통전적으로 재구조화된 교육과정: 이는 다만 교과 중심적인 것으로 끝나는 전통적 방식을 넘어서서, 교과와 교과가 서로 연관되도록 전체적으로 엮어내고, 이론과 실천이 연계되도록 하고, 인격과 교과내용이, 교사와 학생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학교와 세계 및 우주 전체가 서로 엮이는 구조를 의미한다.

(6) “깨달음” - 교육과 자기 학습의 진정한 과제: 학습은 다만 지적 전수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특별한 내적 인식, 즉 오랫동안 “궁리”(窮理)하여 도달하는 “깨달음”(覺)을 목표로 한다. 이른 바 자유학교들에서 종종 나타나는 아동 중심적 학습방식이나 방만한 삶의 자세를 거절하고, 자기 책임적 자세를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수-학습 과정을 구현한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학습 구조는 한편으로 문화적 학습 과제를 인식하기 위한 뜻을 가지지만, 다른 한편 이를 넘어서서 자기의 내면세계, 즉 영혼의 세계를 하느님께로 열기 위한 뜻도 가진다.

(7) 한국인의 얼과 몸에 맞는 토착화된 교육: 앞서 언급한 신학적, 교육학적 의미를 한국인의 얼을 바탕으로 추구하려는 것이다. 한국인의 삶의 양식에 녹아난 교육과 문화적 전통들 중 의미 있는 것들을 기독교적 전승과 서구 교육적인 모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 있게 해석해 낸다.

(8) 생태와 생명, 평화적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 현 세계의 주도적 흐름이 끌고 가는 경제 세계화적 교육방향, 돈과 맘모니즘, 경쟁과 지배, 착취와 종속의 교육을 온 몸으로 거부하며, 오히려 성서가 증언하고 진정한 교육이 증언하는 바, 생명을 살리고, 더불어 사는 가치가 생동하는 생태와 생명, 평화적 가치를 추구하려 한다.

(9) 희망하는 인간상 - “작은 구도자”: 산돌학교가 희망하는 인간상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작은 구도자”라 할 수 있다. 하느님의 우주 안에서 생명적 진리를 추구하고 이를 발견하며 이를 이웃과 더불어 체화해낼 수 있는 인간을 말한다. “작은”이란 형용사를 붙인 것은 아직

은 어리기 때문이요, 자라나야 할 몫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으로되, 이점에 있어 교사들도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스스로를 “작은 자”로 인식하고 발견하려 한다. 그래서 우리의 학교공동체는 “작은 형제”들로 이루어질 것이다. 스스로를 작은 자로 발견함으로써 스스로 평민의식을 갖추게 되고, 이웃과 형제가 되고, 우주 자연 만물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생태적이며 민주적인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작은 자는 추구할 것이며 추구하는 자는 스스로를 마땅히 작은 자로 발견할 것이다.

이상 철학적 뼈대를 바탕으로 현장 교사들은 공동 작업을 통해 교육과정 설정을 위한 기본 뼈대를 만들어냈다. “작은 구도자”(일명 “작구모”)라는 인간상 하에 다음 네 가지 하위 지향점을 설정했다. ① 궁리(窮理)하는 사람, ② 마음을 다하는 사람, ③ 생명을 살리는 사람, ④ 나누고 섬기는 사람. 이를 토대로 교과와 각 영역이 분지화 되어 있는데, 종교교육의 요체만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2) 종교교육 교육과정의 기본 개념

종교교육은 ① 정기적인 기도과 수행, 경건과 실천, ② 하느님, 나, 이웃, 자연과의 깊은 대화와 성찰, ③ 종교교과 수업과 예배, 명상, 묵언, 생태적 신앙체험이라는 구조를 중심으로 일상적 삶과 교육과정 전체에서 이루어진다.

종교교과는 일주일에 한 시간, 예배 역시 한 시간 배정되어 있다. 아침 6:30에 기상하고 7시까지 30분 동안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 이때 경전이나 고전 중 간단한 본문을 읽고 아침 산행을 한다. 아울러 세계의 위대한 종교문화에 대해 눈을 뜨게도 한다. 이 주제를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체험하도록 한다. 그런 점에서 “영성교육”이다. 요컨대 “내 안에 숨어있는 그 분”(구약성서, 창세기 2장 7절)을 밝히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을 따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참나”(眞我 - “속알”, 즉 하나님을 깨친 나)를 밝히는 것이라 한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 전체를 수련과 수행의 주제로 삼게 한다. 늘 깨어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조신(操身), 조심(操心)하는 생활이라 할 수 있다. 해 뜨기 전에 일어나고, 음식은 정성을 다해 먹고, 해가 진후 2-3시간 이내에 잠들고, 마음을 다해 공부하고, 생명을 키우는 노동에 힘쓰며, 모든 만남을 스승님 만나듯 하되, 이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한다. 이 모두 몸으로 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게 하되, 잘못된 습관은 고치고 좋은 습관은 몸에 배이게 한다.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하게 약동하게 하자는 것이다.³⁸⁾

기독교 신앙이 한국인의 삶과 문화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전개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통 교육의 면면을 기본 뼈대로 삼는다. 온몸으로 체험하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 서당 및 서원 교육의 현대화, 역사 문화 유적지 답사, 국토 순례, 동양고전 읽기, 전래 놀이, 전통음악(풍물 민요, 정악 등), 민족무예, 전통예절(應對進退之節), 한글 살이, 다도, 서예(전각) 등.

38) 조영훈, <일상 속에서 생명의 영성을 일깨우다>(산돌학교 미간행 교육자료집).

앞서 거론한 것 중 “서당 및 서원 교육의 현대화”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산돌학교에서 지난 3년간 발전시킨 사례들 중 하나가 있다. 그것은 정좌법과 호흡법에 따른 것으로, 학생들은 입학하게 되면 온돌방으로 되어있는 교실의 좌식 책상에 앉아 끊임없이 흐트러지는 자신의 몸과 싸우게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상당히 힘들어하지만 한 달 정도가 되면 학생들은 대부분 이것이 가장 몸에 좋은 학습법임을 깨치게 된다. 학생들은 적응해 들어가면서 이 방법이 주의 집중에 있어서도 유효할뿐더러 바깥 세계와 통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수련법임도 깨치게 된다. 산돌학교에서는 개인별 수업이나 완전학습시스템을 연구 및 실험의 과제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입증된 바에 따르면, 좌식 교실이 학생이나 교사 모두에게 모듈수업이나 토론식 수업과 공동탐구학습에 대단히 편리한 구조임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³⁹⁾

이상 소개한 철학적 지향점과 종교교육의 노선에서 필자와 현장교사들은 일정한 협력구조를 통해 자유종교교육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탐색해 나갈 것이다.

이 글은 비록 기독교종립학교를 위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여기서 끌어낸 단서들은 국공립학교를 위해서도 의미하는바 적지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귀성, <한국의 중등학교에 있어서 종교교육의 현황과 과제>, 《종교교육학연구》 제 3권, 1997, 129-168쪽.
- 김영래, <기독교교육을 위한 현대적 지식개념의 비판적 고찰: 발도르프 교육의 지식경험을 중심으로>, 《신학과 세계》 제 39호, 1999, 가을: 411-436쪽.
- 김철주·고병철, <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종교교육의 쟁점과 새로운 방향>, 《종교교육학연구》 제 17권, 2003, 107-132쪽.
- 김형중, <한국의 초·중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 3권, 1997, 111-127쪽.
- 손원영, <제 7차 교육과정과 기독교 학교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 13권, 2001, 103-138 쪽.
- 송순재, <유학공부론의 심미적·예술적 성격: 공자의 예에 관한 논설을 중심으로>, 《신학과 세계》 제 51호, 2004, 25-59쪽.
- 송준석, <제 7차 교육과정과 천도교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 13권, 2001, 139-153쪽.

39) 안성균, <산돌학교의 교육내용과 학습형식>, 《모색21 - 대안교육포럼자료집》, 2004, 각주 15.

- 성기선, <제 7차 교육과정과 가톨릭 학교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 13권, 2001, 83-101쪽.
- 안성균, <산돌학교의 교육내용과 학습형식>, 《모색21-대안교육포럼자료집》, 2001, 각주 15.
- 양은용, <제 7차 교육과정과 원불교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 13권, 2001, 155-173쪽.
- 이은선, <루돌프 슈타이너의 신지학과 교육>, 《교육철학》 제 19집, 1998, 199-218쪽.
- 장종철, <다원문화적 종교교육의 신학적 접근>, 《신학과 세계》 제 38호, 1999, 245-282쪽.
- 정순우, <수양과 지식: 유학에서의 공부론>, 《처음처럼》 제 33/34호, 2002, 78-110쪽.
- 정진홍, <7차 교육과정과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 13권, 2001, 3-42쪽.
- 조영훈, <일상 속에서 생명의 영성을 일깨우다>(산돌학교 미간행 교육 자료집).
- 홍순명, <교육의 기본을 살리자>, 《처음처럼》 제 29호, 2002, 10-15쪽.
- 금장태, 《성학십도에 대한 주석과 퇴계 철학의 구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 류상태, 《청소년을 위한 종교이야기. 세계종교의 문을 열다》, 서울: 인물과 사상사, 2005.
- 성장학교 별 (역음), 《프레네 학교 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별, 2006.
- 송순재, 《유럽의 아름다운 학교와 교육개혁운동》, 인천: 내일을 여는 책, 2000.
- 이정훈, 《그리스도인을 위한 전통문화이야기》, 서울: 한들, 1999.
- 정순목, 《퇴계의 교육철학》, 서울: 지식산업사, 1990.
- 홍순명, 《풀무학교이야기》, 인천: 내일을 여는 책, 1998.
- Arbeitsgemeinschaft(Hrsg.), Handbuch Freie Schulen. Pädagogische Position Träger. Schulformen und Schulen im Überblick, Reinbeck bei Hamburg 1993.
- Baillet, D., Freint-praktisch. Beispiele und Berichte aus Grundschule und Sekundarstufe, 송순재 · 권순주 역, 《프레네 교육학에 기초한 학교 만들기》, 인천: 내일을 여는 책, 2002.
- Bischöflicher Schulamt der Diözese Rottenburg-Stuttgart(Hrsg.), Marchtaler Plan. Erziehungs- und Bildungsplan für die Katholischen Freien Grund- und Hauptschulen in der Diözese Rottenburg- Stuttgart. Bd I./II. Rottenburg 1990.
- Bischöflicher Schulamt, Reflexionen zum Marchtaler Plan. Rottenburg 1992.
- Bohlen, C., "Rudolf Steiner-Pädagogik und religiöse Erziehung", In: Anthroposophie und Christentum. Eine kritisch-konstruktive Auseinandersetzung, Hrsg. v. J. Müller, Freiburg · Schweiz 1995,
- Comenius, J. A., The Grate Didactic, 정확실 역, 《대교수학》, 서울: 교육과학사, 1992,
- Evangelisches Schulzentrum Leipzig(Hrsg.), Konzeption des Evangelischen Schulzentrum Leipzig e.V.
- Eyckeler, M.(Hrsg.), Carl-Joseph-Leiprecht-Schule. Jahresheft 1995/1996, Hrsg.v. Freies Katholisches Schulamt. Rottenburg am Neckar, 1996.
- Harris, M., Fashion me a people, 고용수 역, 《회중형성과 변형을 위한 교육목회 커리큘럼》,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1997.

Hinz, A., "Marchtaler Plan und Montessori Pädagogik - Kinder sind anders", In: Einweihung des Neubaues der Carl-Joseph-Leiprecht-Hauptschule und 20-jähriges Jubiläum der Carl-Joseph-Leiprecht-Schule, Hrsg.v. Freies Katholisches Schulwerk Rottenburg, Oktober 1989.

Jung, B.(Hrsg.), Evangelisches Schulzentrum Leipzig-Versuch einer Standortbestimmung, Leipzig 1998.
Kirchlicher Akademie der Lehrerfortbildung Obermarchtal(Hrsg.), Marchtaler Fenster-Neue Kunst. Sonderausgabe der Marchtaler Pädagogische Beiträge. Obermarchtal, 1993.

Koerrenz R. · Collmar, N., Die Religion der Reformpädagogien, Weinheim 1994.

Lietz H., Religion als Lebensstil, In: Die Religion der Reformpädagogien, Hrsg. v. R Koerrenz · N. Collmar, Weinheim 1994.

Grunder, H.-U., "Landerziehungsheim-Gründergestalten und Konzeptionen", In: Reformpädagogik und Schulreform in Europa. Bd. 1., Hrsg. v. M. Seyfrath-Stubenrauch · E. Skiera, Hohengehren 1996.

Montessori, M., Die Entdeckung des Kindes, Hrsg. u. eingel. v. P. Oswald · G. Schulz-Benesh. Freiburg · Basel · Wien 1984.

Montessori, M., Kinder sind anders, Übers. v. P. Eckstein u. U. Weber. Bearb. im Auftr. d. Erben d. Verf. v. H. Helming, Frankfurt M. · Berlin · Wien 1980.

Montessori, M., Grundlagen meiner Pädagogik. Besorgt und eingel.v. B.Michael. Heidelberg · Wiesbaden 1988.

Müller, J., "Anthroposophische Erziehung und christlicher Religionsunterricht an Waldorfschulen", In: Anthroposophie und Christentum. Eine kritisch-konstruktive Auseinandersetzung, Hrsg. v. J. Müller, Freiburg · Schweiz 1995,

Nipkow, K.E., Grundfragen der Religionspädagogik, Bd.1., Gütersloh 1984.

Oswald, P., "Kosmische Erziehung", In: Beiträge zur Montessori-Pädagogik, Hrsg.v. Schield · Weidlich, Stuttgart 1977.

Richter, T.(Hrsg.), Pädagogischer Auftrag und Unterrichtsziele einer Freien Waldorfschule. Stuttgart 1995.

Saup, B., Zur Freiheit berufen. Zur Dimension des Ethischen im Marchtaler Plan, Frankfurt am Main, 1994.

Weber, D., "Gedanken zum Vernetzten Unterricht im Marchtaler Plan", In: Einweihung des Neubaues der Carl-Joseph-Leiprecht-Hauptschule und 20-jähriges Jubiläum der Carl-Joseph-Leiprecht-Schule, Hrsg.v. Freies Katholisches Schulwerk Rottenburg. Rottenburg am Neckar, Oktober, 1989.

원고접수: 2006년 11월 11일 1차심사: 11월 25일 게재승인일: 12월 10일

연구자 소개: 송순재

① 전공: 일반교육학, 종교교육학, 학교교육학, 성인교육학 / 소속: 감리교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② 관심영역: 정신과학, 교육인간학, 교육미학, 영성교육, 간종교교육, 학교교육, 대안교육

③ 주요논저: 《유럽의 아름다운 학교와 교육개혁운동》, <기독교적 삶의 형성을 위한 일상성 문제>, <기독교적 삶의 형성을 위한 통전성 문제>, <한국에서 "대안교육"의 전개과정 및 성격과 주요 문제점>, <유학공부론(儒學工夫論)의 심미적-예술적 성격 : 孔子의 藝에 관한 논설을 중심으로>

④ E-mail: ssj1887@mts.ac.kr

Abstract

A Study on the Models for Free Religious Education through the Analyses of Three Religious Alternative Schools

Song, Sun-Jae

Methodist Theological Seminary

This article aims for realizing Christian schools' obstacles that politically and pedagogically are preventing religious education from developing in Korea, and then suggesting three models of Christian schools which could be the clues of potential religious education. And this article also tries to infer the fruitful conclusion for educational fields with viewing the debating points that could be meaningful in the present situation, through the analyses of the model schools' characteristics.

The model schools are chosen among Religious alternative schools that are practicing free religious education in Germany. The reasons why I chose these schools are as follows : First, German society perceives religion as a part of public education unlike the United States. Second, religious alternative schools have shown meaningful developments in this area. The three models of religious schools are Landerziehungsheim of Hermann Lietz, a Protestant school, Carl-Joseph-Leiprecht-Schule, a Catholic school, and Waldorfschule, an anthroposophical religious school.

In the conclusion part, I propose some issues which will be applied meaningfully to Korean context through the analyses of three cases. Moreover I also search for the characteristics of Poolmoo agricultural high school's religious education which could be an unusually successful case in Korea. Finally, based on the argument as I mentioned above, I propose Sandol School, Korean Methodist Religious Alternative School as a model for free religious education in our country because I myself formulated the basic principles of its philosophy and curriculum.

Although this article is mainly focused on the Christian schools, it can be used as a rich evidence for national · public schools' religious education.

Key words : Christian schools, free religious education, religious alternative schools, political freedom and pedagogical freedom.